



CSI

재즈 시대 뉴욕, 과학수사의 탄생기

IN

모던타임스

데버러 블룸 지음 . 장세현 옮김

◎ 뉴욕 타임스 베스트셀러(2011), 아마존 TOP 100 (2010) 선정
 ◎ 위스콘신 대학 과학 저널리즘 교수, 풀리처상 수상 작가의 최신작

제1차 세계대전의 종식, 천재 화학자 마담 퀴리의 등장, 금주법의 시행.....
 그 끝에는 독살이 있었다
 9개의 독극물과 11번의 살인으로 재구성한 뉴욕 연대기
역사와 과학만으로 최고의 서스펜스를 선사하다

“이 책을 읽는다면 CSI 시리즈의 작가는 부끄러워 질 것이다.”

-뉴스위크Newsweek

“《위대한 개츠비》의 시대를 제대로 알고 싶다면 읽어야 할 책”

-북라이어트bookriot.com

| 책 소개 |

폴리처상 수상 과학 저널리스트 데버러 블룸이 재즈 시대 뉴욕을 휩쓴 ‘독살의 광풍’을 소재로 전에 없던 지식 논픽션을 선보인다. 세계 정치사와 과학사의 주요 사건들이 불러온 핏빛 현실에 대한 이야기이자 미국 과학수사의 탄생기이다. 저자가 집요한 추적 끝에 역사적·과학적 사실로만 재구성한 한 도시의 연대기가 탁월한 스타일러처럼 읽히며 지적 쾌감을 안긴다.

1. 재즈 시대 뉴욕,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나?

-뉴욕, 황금에 취하다

재즈 시대라 불리는 1920~1930년대 뉴욕. 1차 세계 대전 이후 성급히 찾아온 경제 부흥 속에서 사람들은 재즈 음악에 호느적거리며 유흥과 향락에 빠져들었다. 전쟁 이후 폭발적으로 발전한 과학 기술은 정부와 부호들에게 황금을 안기며 그 쾌락에 한몫 했다.

-독살의 전성기

시대가 잘못되어 가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은 바로 ‘독살’이었다. 터무니없는 금욕주의가 만들어낸 금주법은 독성 알코올로 만든 밀주를 탄생시켰고, 가난한 자들은 목숨을 걸고 술을 삼켰다. 마담 퀴리를 필두로 한 과학자들은 새로운 원소와 화합물의 발견을 이끌었지만, 그렇게 탄생한 제품들을 먹고 바른 사람들의 죽음은 어찌하지 못했다. 살인에 쓰이는 것 또한 마찬가지였다. 또 어떤 이들은 부패한 정부와 기업이 눈감은 치명적인 환경 속에서 기계 부품처럼 쉬지 않고 일하다 쓰러져갔다.

-미국 과학 수사 시작

이 도시에서 원통하게 죽은 사람들의 유일한 애도지들은 범의학자들, 특히 지금껏 뉴욕 최고의 검시관이라 불리는 찰스 노리스와 법화학의 아버지라 평가받는 알렉산더 게틀러였다. 이 두 사람은 부패한 검시청을 바로 세우고, 집요하고 끈질긴 연구로 사인을 규명하며, 범의학을 경시할 수 없는 과학의 위치로 끌어올렸다.

이처럼 책은 무법 도시 한가운데에서 범의학이라는 새로운 질서가 어떻게 탄생되었는지를 보여준다. 폴리처상 수상 과학 저널리스트인 저자는 전문성과 치밀한 조사를 바탕으로 이 방대한 서사를 한 권의 책으로 구성해냈다.

2. 폴리처상 수상 과학 저널리스트가 완성한 역사와 과학을 관통하는 지식 논픽션

2-1. 9개의 독극물과 11번의 살인 사건에 담긴 풍부한 과학 지식

책은 1915년부터 1936년까지 20여 년간 뉴욕을 뒤집어 놓은 11번의 살인 사건을 두 법의학자가 파헤치는 과정을 주축으로 삼고 있다. 여기에 관여된 클로로포름, 비소, 시안화물, 일산화탄소 등 9개 독극물의 추적하는 두 법의학자의 고군분투기 속에 풍부한 과학 지식이 담겨 있다. 그 내용은 각 독극물의 특성과 역사는 물론 인체에 해를 끼치는 경로, 사체에 남기는 특유의 흔적과 검출법에 이른다. 다만 우수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적용한 사건들이 나열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독자들은 두 법의학자의 부검실과 연구실에서 새로운 과학 지식들, 과학사의 전환점들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시안화물로 인한 살인을 입증하지 못한 뒤 실시해 21세기 독성학자와 정부 요원들까지 참고하는 자료가 된 알렉산더 게틀러의 연구, <시안화물 독성학>: p. 106~110

-찰스 노리스가 주도한 테트라에틸납 판매 금지령: p. 170~175

-알렉산더 게틀러의 사후 인체에 미치는 일산화탄소의 영향력 연구: p.200~203

2-2. 과학사와 미국의 정치경제사의 퍼즐을 완성하다

이 과정에서 지난 세기 과학 발전의 명암이 극명하게 드러난다. 마리 퀴리가 발견한 방사성 원소 라듐은 초기 암 치료는 물론 에너지 드링크에도 쓰인다. 라듐 공장 여공들이 목숨을 잃고 대부호가 라듐 드링크에 대한 맹신 끝에 죽음에 이르기 전까지, 두 법의학자가 사체의 뼈에서 아직도 라듐이 붕괴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전까지, 사람들은 라듐을 과학이 안겨준 선물처럼 여겼다.

또한 미국 정치경제사의 이면 또한 엿볼 수 있다. 휘발유의 불완전 연소로 인한 문제를 해결해준 테트라에틸납은 치명적 독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급증하는 자동차의 수요에 눈먼 기업과 정부의 담합으로 오래도록 규제를 면한다. 술로 인한 모든 부작용을 막겠다는 ‘금주법’ 아래 살아가던 사람들이 왜 프랭클린 루스벨트의 슬로건, ‘행복한 시절을 다시 한 번’에 해갈을 느꼈는지 그 전후 사정이 밝혀진다.

과학의 발전과 전쟁이 가져다 준 황금의 시대, 그 뒷면에 자리한 디스토피아적 풍경이 전하는 메시지가 묵직하다.

금주법의 발효와 함께 등장한 메틸알코올 밀주의 문제: p. 62~66

테트라에틸납 생산 및 판매 전면 허용: p. 186~187

미국 라듐 주식회사 여공들의 소송: p. 247~268

프랭클린 루스벨트의 대통령 당선: p. 302~304

2-3. 《The Poisoner's Handbook》(원제),

폴리처상 수상 과학저널리스트의 대표작이 되다

풀리처상 수상 과학 저널리스트 데버러 블룸은 1920~1930년대 신문 기사, 사건 기록, 두 법의학자가 발표한 논문, 성명서, 행정가들에게 보낸 서한 등 모든 기록을 섭렵하여 이 방대한 서사를 완성했다. 그 결과 출간 즉시, 이 책은 언론과 독자에게 ‘역사와 과학만으로 최고의 서스펜스를 선사한다’는 평가를 받으며 아마존 Top100(2010년), <뉴욕 타임스> 베스트셀러(2011년)에 올랐으며, 미국 중부 작가 협회(the Society of Midland Authors)에서 최고의 논픽션(2010년)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저자는 자신의 수식어를 풀리처상 수상자에서 《The Poisoner’s Handbook》(원제)의 저자로 갈아치우며, 명실공히 미국의 인기 과학 저널리스트 반열에 올라섰다.

| 저자 소개 |

데버러 블룸 Deborah Blum

1992년 영장류 연구로 풀리처상을 받았으며, 위스콘신 대학 과학 저널리즘 교수이다. <뉴욕 타임스(New York Times)>, <월스트리트 저널(Wall Street Journal)>, <로스앤젤레스 타임스(Los Angeles Times)>, <슬레이트(Slate)>, <사이콜로지 투데이(Psychology Today)>, <머더 존스(Mother Jones)> 등에 과학 칼럼을 써왔으며, 전미 과학 저술가 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Science Writers) 회장을 지내고, 세계 과학 저널리스트 연합 북미 위원(the North American Board member of the World Federation of Science Journalists)을 지내는 등 미국의 대표 과학 저널리스트로 평가받고 있다.